금주의 법구-〈법구경〉
항상 새벽처럼 깨어 있어라.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을 즐겨라.
자기의 마음을 지켜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00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7월 27일) 2022년 8월 24일 수요일



독립유공자 후손들 진관사서 힐링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 이하 문화사업단)은 국외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29명(미국계 19명, 카자흐스탄계 10명)을 대상으로 8월 15일 진관사에서 당일형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진관사는 1919년 독립운동 당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태극기가 발견된 곳이어서 이날의 행사는 더욱 큰 의미가 전해졌다. 사진은 템플스테이에 참여한 국외거주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현장 기사 3면〉 진관사=김주일 기자

삼보정재 강탈당한 봉은사 417억원 국가 배상 받는다

8월 18일 서울고법서 2심 승소 판결

1971년 공무원들 서류 조작
"불법행위로 피해 정부 배상"
정부 책임 70→60%로 축소

국가 농지개혁사업 과정 중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토지를 강탈당한 봉은사가 국가로부터 피해 보상 받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 · 김선아 · 천지성)는 8월 18일 봉은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는 봉은사에 417억 50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정부 책임이 더 적게 인정되면서 배상금 규모는 줄었다. 1심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정부 책임을 70%로 인정해 487억 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정부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이번 소송은 1958년 이승만 정부가 농지개혁으로 봉은사 소유 토지를 사들인 후 경작분배하고 남은 토지가 1968년 농지개역사업 정리 특별법에 따라 원소유자인 봉은사에 반환되었어야 함에도 1971년 공무원 백모씨와 김모씨의 서류조작으로 유실되며 발생했다. 1959년과 1970년 소송 대상 토지가 봉은사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뤄졌지만, 1971년 공무원 백모씨와 김모씨가 해당 토지가 분배상환이 완료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들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1978년 8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봉은사는 망실 토지를 되찾기 위해 최종소유명의자를 상대로 토지 반환 소송에 나섰지만 소유권이 이전된지 10년이 넘었고, 제3자 선의 취득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2015년 1월 패소했다.

당시 공무원들의 서류조작으로 인하여 정재를 사실상 강탈당한 봉은사는 결국 2019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시작했다.

당시 1심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는 원소유자인 봉은사에 환원됐다고 봐야 하지만, 공무원들이 분배 · 상환이 완료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정부는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2006년 종단이 근현대 망실 삼보정재 환수를 선언한 이후 가장 두드러진 성과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노덕현 기자

진우 스님 "소통 통해 불교중흥 완성"

8월 17일 기자간담회서 종책 공약 발표

소통 · 포교 · 교구 3대 기조
수행 · 복지 등 7개 중점분야
교구 특성 반영한 전략 개발
장기적인 포교종책도 약속해

중앙선관위 자격심사 통과하며
37대 총무원장 사실상 확정돼
오는 9월1일 당선증 교부 예정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에 당선 확정된 진우 스님이 종책 공약을 제시했다. 스님은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은 가운데, 포교와 교구를 3대 기조로 설정하고 7대 중점분야에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8월 17일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종책 공약을 일부 공개했다. 진우 스님은 이번 총무원장 선거에 단일후보로 출마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격심사를 변수 없이 통과해 무투표당선이 확정된 상태다. 9월 1일 당선증을 교부받을 예정이며 다음날인 9월 2일 원로회의 인준 절차를 거치면 차기 총무원장으로 최종 확정된다.

진우 스님은 이날 '불교중흥! 새 역사를 열겠습니다'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종단운영 3대 기조와 7대 중점분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3대 기조는 소통, 포교 그리고 교구이며, 중점분야로는 △수행 △교구 △포교 △교육 △승가복지 △문화 △사회다.

스님은 "사부대중이 꿈꾸면 불교가 달라진다. 잘하는 것은 더 발전시키고 고칠 것은 고칠 것이며, 바꿔야 한 것은 변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3대 기조와 7대 중점분야는 이같은 변화를 위한 굳건한 원칙으로 삼아 한국불교와 종단을 위해 원력을 세우고 신심을 다해 공심으로 매진하겠다는 약속이다.

진우 스님은 3대 기조 가운데 특히 소통을 최우선으로 강조했다. 신심과 진심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사부대중의 지혜를 모아나가겠다는 약속이다. 스님은 "과거와 소통하고 미래와 소통하겠다. 또 현재의 소통으로 불교중흥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최고의 과제로는 포교를 꼽았다.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확산하는 포교를 최고의 과제로 삼겠다는 취지다. 스님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포교라는 사명으로 도심포교와 청년, 어린이 등 다양한 계층에 맞는 방안의 지혜를 바르게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교구발전은 곧 불교중흥의 기틀이라는 신념도 드러냈다. 스님은 "종단의 주추과 같은 교구의 역할을 높이는 것은 곧 한국불교 도약의 반석이자 지름길"이라며 "교구본사 중심의 효율적인 종무행정을 제안하고 사회적 역할 확대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7대 중점분야 중에서는 수행을 첫 번째로 꼽았다. 스님은 "종도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승가, 신뢰받는 종단을 구현하기 위해 매진하겠다"며 특히 "봉암사 결사에서 상월선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결사 운동을 더욱 확산해 한국불교의 새로운 중흥을 열어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구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도 제시했다. 교구별 특성화 전략의 적극 발굴은 물론, 교구 중심의 운영을 중앙에서 지원하는 형태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중점과제 중 포교의 핵심은 미래세대로 꼽았다. 이를 위해 전법위원회 신설을 통한 장기적인 포교정책의 수립, 불교콘텐츠 개발, 교구본사 중심의 포교시스템 구축, 계층별 핵심인력 양성 등을 실천안으로 꼽았다. 특히 포교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권역별 광역시를 기점으로 하는 명상힐링센터 건립, 규모있는 법회의 정례화를 통해 종단포교의 지평을 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前교육원장으로 종단 교육종책을 주도했던 경험을 살려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도 선언했다.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출가교육 시스템, 연수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대표적이다. 특히 한국불교의 직면과제인 출가자 감소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예비출가'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전통사찰이 보유하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존 위주의 문화재 정책을 '활용'의 관점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개진한다. 스님은 연등회 전승과 함께 한국불교의 대사회적 역할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사회 주요의제에 대응할 수 있는 총괄기구 설립, 불교소양을 갖춘 분야별 정책전문가 양성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스님은 "사회적 약자 보호는 물론, 기후변화 등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의제에 대해서도 시민사회, 이웃종교와 연대하는 책임감 있는 종교의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신뢰받는 불교로 거듭나 세상의 든든한 벗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2면〉

세계불교인식논리학회 첫 한국 대회 개최

8월 22일 동국대서 개막식… 26일까지 진행

20개국 50여 명 학자 참여

불교인식론과 논리학의 최신 연구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국제 학술대회가 열린다. 세계불교인식논리학회는 8월 22일 동국대에서 제6차 대회 개막식을 개최했다. 대회는 8월 26일까지 진행된다.

세계불교인식논리학회는 불교학과 동양철학 분야에서 특정 주제를 갖고 열리는 학술대회 중 규모가 가장 크고 내용도 심도 있는 학회로 세계 권위를 자랑한다. 세계불교인식논리학회가 국내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세계 20여개국에서 50여명 발표자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불교학계의 세계적 권위자인 일본 가츠라 쇼류 히로시마대학 명예교수를 비롯한 원로교수를 필두로 중진학자와 신진학자들이 참여해 불교 인식론, 존재론, 논리학에 대한 최신 연구동향을 발표했다. 또한 한국 불교논리학의 전반적인 소개와 원효 스님 등의 사상에 대해서도 대회 기간동안 소개됐다.

이번 대회 준비위원장을 맡은 우제선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는 "이번 학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것은 한국불교의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라며 "세계 유수학자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한국불교의 위상 제고와 한국내 불교학 연구 성과를 세계에 보다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세계불교인식논리학회는 1982년 일본 교토를 시작으로 1989년 오스트리아 비엔나(2차), 1997년 일본 히로시마(3차), 2005년 오스트리아 비엔나(4차), 2014년 독일 하이델베르크(5차)에서 열린 바 있다. 신성민 기자

금정총림 정상화를 위한 범어문도 총회소집

금정산 범어사는 창건 이래 임진왜란의 전란으로 소실되었으나 先師들의 불심과 원력으로 재건되어 오늘의 대가람에 이르고 있습니다. 원효, 표훈, 낭백, 명학 조사스님 등 대선지식과 근세 경허, 용성, 성월, 만해 그리고 동산대선사께서 주석하시면서 도량을 수호하시고 불법을 헌창하여, 도제 양성과 포교를 통한 원력과 덕화는 오늘에까지 계승되고 있으니 대중은 신심을 더욱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 면면토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동산 대종사의 수행 가풍과 대중화합, 도량의 청향과 신심의 불광은 사그라지고 있으니 심히 통탄할 일입니다. 현재 범어사는 총림의 파행 운영과 주지 임명 문제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에 범어문도 총회를 개최하여 참회와 각성을 통해, 추락한 문도 대중의 위의를 회복하고 작금의 현안에 대한 지혜를 모아 문도 대중화합을 이루어 총림을 정상화시키려 합니다. 범어문도는 문도총회에 흔연히 동참하시어 범어사의 법향과 법음이 만방에 울려퍼지도록 해 주십시오.

총회개최
가. 일시 : 불기 2566(2022년) **8월 30일 오후 2시**
나. 장소 : 금정총림 범어사 보제루

총회안건
가.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교체에 따른 현안 문제
나. 금정총림 파화합에 대한 갈마의 건
다. 금정총림 발전과 문도 화합을 위한 대책
라. 기타사항

참석대상
범어문도 대중

■ **동산혜일대종사 1세 제자** : 원두, 일미, 선래, 흥교, 몽산, 대성, 영환, 도근, 계전 일동
■ **지도위원** : 출가연도 1950~1979년 범어사 재적스님
■ **상임대표** : 종훈, 정여, 수불, 원정, 상화(니)
■ **공동대표** : 범산, 상운, 정현, 화랑, 원범, 현정, 우담, 초안, 원타, 순행(니), 묘선(니)
■ **공동집행위원장** : 선재, 법안, 정산, 혜성, 대방, 혜진, 각명, 진명, 공마, 범일, 항명, 법상, 지명, 동완(니), 법운(니)
■ **사 무 처** : 도관, 정오, 강하, 경흥, 각진, 범천
■ **집행위원** : 범어사 재적승 전원, 금련회 회장 및 회원(니), 화엄회 회장 및 회원(니), 전국비구니회 부산지회 지회장 및 회원(니)
■ **기획위원** : 성광, 범혜 ■ **대변인** : 석산, 도명

일동 합장

불기 2566(2022)년 8월 18일

금정총림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